



도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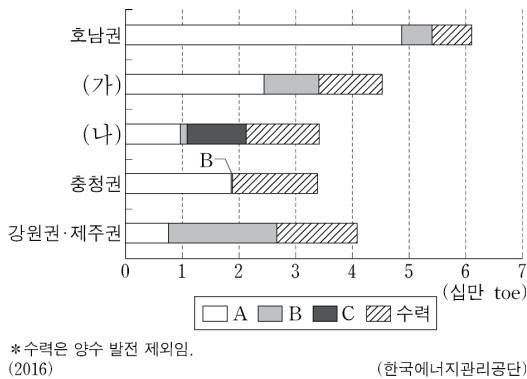
수능사회

한국지리

한국 지리 문제 풀이 계명

- 01 항상 발문을 먼저 확인하여 문제가 무엇을 묻는지 인지하고 문제로 진입해야 한다. 특히 ‘옳은 것’,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라도 쳐서 반드시 확인하는 버릇을 들여야 한다.
- 02 자료든 선지든 모르겠거나 애매한 선지는 넘기고, 아는 것부터 판단한다.
- 03 항상 특잇값을 먼저 처리해야 한다.

참고 자료 | 특잇값 | 19.09 평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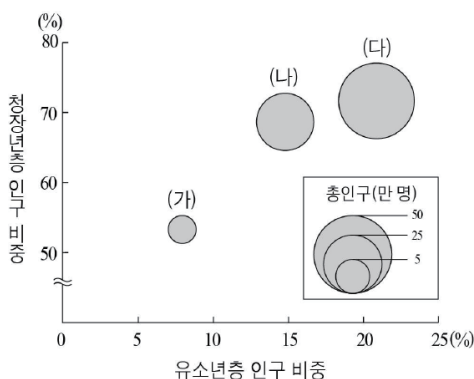


그래프는 권역별 신·재생 에너지 생산량을 나타낸 것이다. (단, A~C는 각각 조력, 태양광, 풍력 중 하나임.)

그래프를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값은 전국에서 (나) 권역에서만 생산 중인 C 에너지입니다. (나)와 C에 조력, 태양광, 풍력 중에서 전국에서 단 한 곳에서만 생산 중인 어떤 에너지와 그 생산 권역을 기입하는 것으로 문제 풀이가 시작됩니다. 그다음으로는 강원·제주권에서 수력보다도 많은 생산량을 보이는 B 에너지가 눈에 띄네요. 아니면 전 시도에 걸쳐 가장 많은 생산량을 보이고 있는 A 에너지를 특정할 수도 있겠지요. 보통 한국 지리 자료 해석은 이렇듯 눈에 띄는 값들을 퍼즐 맞추듯이 하나하나 채워나가는 것으로 완성됩니다. 모르는 통젓값이 있어도 아는 값들부터 채우다 보면 길이 생깁니다. 물론 통계를 전부 외우고 있으면 가장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힘들니까요.

- 04 처음 보는 형식이나 지표가 제시된 문제는 일반성(=개연성, 국어에서 문학 선지 받아들이듯 하자)을 기반으로 추론하자.
- 05 계산을 요구하는 선지는 넘기고, 계산 없이 해결할 수 있는 선지부터 푼다. 계산해야 한다면 계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단위의 수는 후려쳐서 풀자.
- 06 양과 비율은 다르다. 비율이 높다고 무조건 양이 많은 것은 아니며, 비율이 낮다고 양이 적은 것도 아니다. 비율이 높지만, 총량이 작은 값과 비율이 낮지만, 총량이 많은 값을 비교시키는 문제가 나왔을 때는 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시간을 크게 잡아먹으므로 다른 선지를 먼저 보고 나서, 다른 선지가 답이 아니거나 해당 선지가 값을 가르는 선지일 때 계산 하는 것이 좋다.

참고 자료 | 양과 비율 | 16.07 교육청



ㄴ. (가)는 (나)보다 노년층 인구가 많다.

얼핏 봤을 때, (가)가 (나)보다 청·장년층과 유소년층 비중이 크게 작으니까 노년층 인구가 많겠구나 싶다가도, (나)가 (가)보다 총인구가 훨씬 많으므로 비중은 작더라도 노년층 인구수 자체는 많을 수 있으므로, 결국 최소한의 계산은 하게 만드는 선지입니다. 이 문제는 ㄴ을 건너뛰고 ㄷ으로 가면 정답을 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시간 측면이 아니고 서도 대충 눈대중으로 양에 대한 확실한 근거 없이 선불리 맞다 틀리다를 정하는 것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07 애매하게 외워 모르는 것에 가까운 것은 버리고, 아예 모른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푸는 것이 낫다.
- 08 평가원은 애매한 값을 싫어한다. A와 B를 비교한다면, 그 둘은 서로 양극단의 값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문제에 접근하자.
- 09 주석을 잘 확인하자. 주석 하나를 파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 성패가 갈린 문제가 너무나 많다. 뻔한 문제인 것 같은데 풀다가 막힌다면, 주석에 길이 있을 것이다.
- 10 평가원 문항을 분석하다 보면, 평가원이 그동안 문항에서 보여주었던 보편적인 문제·선지 출제 스타일을 볼 수 있습니다. 이를 필자는 ‘Refine’이라고 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문제 해결에 어려움을 겪을 때, 문항의 요소들을 위 출제 스타일에 끼워 맞춤으로써 문항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정석적인 방법은 아니며 편법이라 볼 수도 있겠지만, 수능은 정 안 풀리면 경우에 수에 따라 케이스 분류라도 해서 일단 맞추면 장땡 아니겠습니까?

참고 자료

Refine 예시

예를 들어, 미지수 A, B로 나타난 1차 에너지원이 어떤 에너지원인지 찾아야 하는데, 문제가 어려워서 어떤 에너지원인지 전혀 모르겠는 상황에서, ‘A는 B보다 연소 시 대기 오염 물질 배출량이 많다.’라는 선지가 있다고 합니다.

8번에서도 말했듯이 평가원은 애매한 값을 싫어합니다. ‘대기 오염의 정도’로 에너지원을 비교시켰다면 대기 오염이 심한 에너지원과 그렇지 않은 쪽을 비교시킬 것이 지난 기출을 통해 자명하므로, 대기 오염이 심한 부류인 석탄-석유는 아닐 것입니다. 따라서 A-B는 석탄-천연가스 또는 석유-천연가스일 것이고, 이 중에서도 주로 석탄-천연가스 간의 비교이므로 A-B를 석탄-천연가스라고 가정하고 해결을 시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선지의 조건이 ‘연소 시’가 아니라 ‘발전 시’였더라도 적어도 천연가스-원자력 간의 비교는 내지 않습니다.

Refine은 일종의 출제 코드로서, 평가원이 뒤를 수도 있으므로, 정 길이 안 보일 때, 검토할 때나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 11 분명 처음 풀 때는 논리적으로 허점이 없었던 것 같은데 막상 다시 보면 실수가 발견되는 문제도 있고, 처음 풀 때 발문이나 자료를 잘못 읽어 이상하게 풀었을 수 있으므로 시간이 남으면 무조건 검토해야 한다.
- ① 손가락 걸고 넘어간 문제의 다른 선지 확인
 - ② 발문(특히, 옳은/옳지 않은)에 적절한 선지를 골랐는지 확인
 - ③ 전 문항의 답을 내는 과정과 답이 합당한지 확인
 - ④ 정말 시간이 많이 남는다면, 킬러 문제는 답을 낼 수 있는 다른 케이스도 확인하여 정답의 확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한반도의 형성과 산지 지형

암석

변성암(편마암 등), 화성암(화강암, 현무암 등), 퇴적암(석회암 등)이라는 한국 지리의 3대 암석의 형성 과정을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그러나, 한국 지리는 지구과학이 아니므로, 성분과 형성 과정을 자세히 묻지 않고 원인과 결과 선에서만 묻습니다. 정리하자면 ‘언제, 어디서, 어떻게 암석들이 만들어졌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석회암’은 ‘고생대 초기에, 강원도 남부와 충청북도 북부 일대에서, 바다에 조선 누층군(해성층)이 퇴적되며 형성’으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질 시대 표

지질 시대 표와 지각 운동은 ‘언제, 어디서, 무엇이 일어나, 무엇이 형성되었다.’라는 형식으로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문제에서 지질 시대 표 전체를 제시하였다면, 주로 ‘지질 계통’과 ‘주요 지각 운동’에 빈칸을 만들어 놓았을 것입니다. 이때, 먼저 지질 계통에 첫 칸부터 차례대로 ‘변성-조선-평안-대동-경상-3-4’를 써 놓고 시작하면, 주요 지각 변동은 지질 시대를 보고 각 지질 계통에 맞추어나가면 되므로 해결이 한결 수월해질 것입니다.

참고 자료 | 지질 시대 표 | 16.06 평가원

| 지질 시대 | 선캄브리아대 | | 고생대 | | | 중생대 | | 신생대 | | | |
|----------|---------|-----|---------|-----|-----------|---------|------------|----------|-------|---------|-----|
| | 시생대 | 원생대 | 캄브리아기 | ... | 석탄기 - 페름기 | 트라이아스기 | 쥐라기 | 백악기 | 제3기 | 제4기 | |
| 지질 계통 | (가) | | (나) | | 결층 | (다) | | 대동계 | (라) | 제3계 | 제4계 |
| 주요 지각 운동 | ↑ 변성 작용 | | ↑ 조륙 운동 | | | ↑ 송림 변동 | ↑ 대보 조산 운동 | ↑ 불국사 변동 | ↑ (마) | ↑ 화산 활동 | |
| | | | | | | 화강암 관입 | | | | | |

지각 운동

송림 변동, 대보 조산 운동, 불국사 변동, 경동성 요곡 운동은 출제 포인트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도 한반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중요한 지각 운동으로,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때문에 ‘언제, 어디서, 어떤 영향을 주어, 무엇이 형성되었는가.’를 꼭 외워야 합니다. 예를 들어, ‘송림 변동’은, ‘중생대 초기에,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지각 변동과 화강암 관입이 일어나, 랴오둥 방향(동북동-서남서)의 구조선과 송림 화강암이 형성되었다.’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험장에서 ‘중생대 → 송/대/불, 신생대 → 경동성, 화산’ 그리고 이들의 특성이 바로 떠오를 정도로 외워야 합니다.

빙기와 간빙기(후빙기)

빙기와 간빙기(후빙기) 간의 비교가 주가 되는 ‘기후 변화에 따른 지형 변화 문제’는 빙기와 간빙기(후빙기)가 서로 정반대의 값을 가지고 있으므로, 우선 하나의 값을 정확하게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간빙기(후빙기)를 기준으로 외우는 것을 추천하는데, 간빙기(후빙기)는 바로 지금 이 시대이므로 외울 때나 시험장에서 떠올릴 때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1차·2차 산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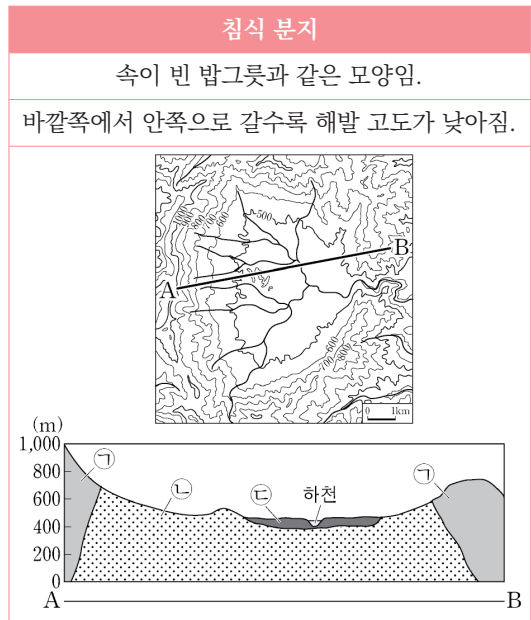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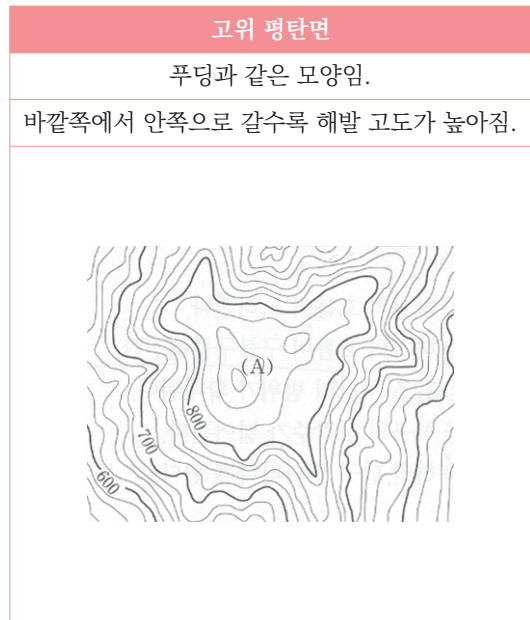
1차, 2차 산맥은 형성 원인과 과정 그리고 현재 어떤 형태로 남아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생대 제 3기에 경동성 요곡 운동(동쪽으로 축이 치우쳐진 비대칭 융기)가 발생하여 1차 산맥과 동고서저의 지형이 형성되었습니다. 지형이 융기하자 중생대의 송림 변동과 대보 조산 운동으로 인해 형성되어 있던 지질 구조 선(랴오둥, 중국 방향)을 따라 침식이 진행되어 산맥과 골짜기가 발달하였으며, 이로 인해 형성된 산맥이 2차 산맥입니다. 1차 산맥은 해발 고도가 높고 산맥의 연속성이 강하지만, 2차 산맥은 해발 고도가 낮고 연속성이 약합니다. 각 산맥의 형성 요인으로 인해, 산맥도에서 2차 산맥은 1차 산맥으로부터 남서쪽(랴오둥, 중국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흙산·돌산

흙산과 돌산의 특성을 묻는 문제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빙기 ↔ 간빙기(후빙기) 비교 문제와 마찬가지로 서로 정반대의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흙산·돌산의 특성과 함께, 특정한 산의 위치를 함께 묻게 되면 난이도가 상승하게 되나, 주로 출제되는 흙산(지리산, 덕유산, 오대산)과 돌산(금강산, 북한산, -악산)이 정해져 있으므로, 미리 숙지해둔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고위 평탄면과 침식 분지

고위 평탄면과 침식 분지 문제는 주로 지형도를 제시하고 어떤 지형인지 맞히도록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지형은 전혀 다른 지형이지만, 바깥쪽의 등고선 간격이 조밀하고 중심이 평탄하다는 지형상 공통점 때문에 지형도상 구분에 실수할 수 있으므로, 지형도를 보고 구분하는 방법을 숙지해야 합니다.



화산 지형과 카르스트 지형

화산 지형과 카르스트 지형

화산 지형과 카르스트 지형은 굉장히 다양한 출제 요소를 가지고 있고, 지형도를 이용한 앞 단원의 다른 지형과의 복합 출제의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는 점에서 중요한 단원이므로 잘 공부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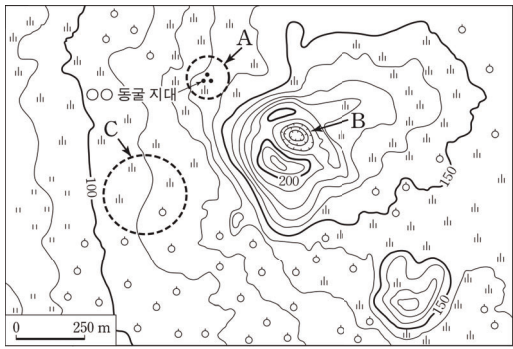
참고 자료 지형도 해석의 철칙

- ① '등고선' 체크
- ② '특별한 지형 표시' 체크 절벽, 솟은 곳, 파인 곳 등
- ③ '지명' 체크

①과 ②는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보통 잘 체크하지만, ③을 간과하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하안 단구가 아니라 다른 지형처럼 보이더라도, 우측에 동해라 표시되어 있고, 정동진이라는 지명이 쓰여 있다면 '아 해안 단구구나!'라고 생각을 정정하도록 가장 확실한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지명'입니다. 지형도 해석에 가장 정확한 객관적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지명이므로, '지도나 지형도에 지명이 있다면 해석에 반드시 사용할 것'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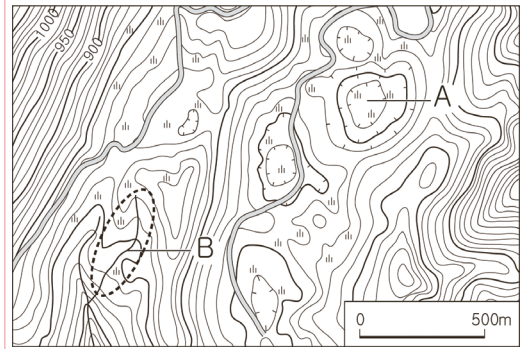
제주도-카르스트 지형도

제주도
 전체적인 지형은 등고선 간격이 넓은 편이나¹⁾, 완만한 지형 가운데에,
 등고선 간격이 '조밀한 지형 = 기생 화산'이 있음.
 일부 기생 화산에 저하 등고선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화구이지 돌리네가 아님.



1) 제주도의 한라산을 제외한 전반적으로 완만한 지형.

카르스트 지형
 전체적인 지형은 등고선 간격이 조밀한 편²⁾이나, 그 사이에 상대적으로 너른 간격의 지형에
 '저하 등고선 지형 = 돌리네'가 있음.
 경사가 급하면 빗물 등의 외부에서 공급된 물이 용식을 잘 일으킬 수 없으므로, 돌리네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경사가 완만해야 함.



2) 조선 누층군이 주로 위치한 사-도는 강원도, 충청북도이다.

석회 동굴·용암 동굴

동굴은 이 단원의 다른 문항과 달리 지형도가 중심이 되는 문항이 아니며, 보통 동굴의 위치나 형태, 특징 등을 직접 알려주기 때문에 구분이 어렵지 않습니다. 한국 지리에서 출제되는 동굴은 석회 동굴과 용암 동굴뿐인데, 용암 동굴은 제주도에 밖에 없으므로 용암 동굴이 확인되면, 다른 동굴은 석회 동굴로 간주하고 풀면 되며, 각 동굴의 형성 요인, 특징을 알고 있으면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을 것입니다.